

# 극장가 여름 대전의 함정...꼬리무는 겹치기 개봉

### ‘신과함께’ 주지훈 vs ‘공작’ 주지훈...‘공작’ 이성민 vs ‘목격자’ 이성민 홍행 검증 받은 배우들 ‘풀’ 안에서만 캐스팅...모험 안 하는 투자·제작사

극장가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주연급 배우들이 동일한 영화들의 겹치기 개봉이 예고되고 있다.

7월 말 방화과 함께 시작되는 올 여름 극장가 성수기에는 네 편의 한국 영화들이 경쟁을 벌인다.

김지운 감독의 판타지 SF 영화 ‘인랑’이 가장 먼저 출격하고 시리즈 창간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과함께-인과 연’(이하 ‘신과함께 2’)과 황정민 주연의 남북 첩보 영화 ‘공작’이 한 주 간격으로 개봉한다. 이성민 주연의 스릴러 영화 ‘목격자’도 8월 개봉을 확정했다.

‘신과함께 2’에서 저승 삼차사 중 해원맥 역을 연기하는 주지훈은 ‘공작’에서도 북의 국가안전보위부 과장 정무택 역을 맡아 비중있게 출연한다.

관객들은 8월 한 달 동안 두 영화 모두에서 주지훈을 만날 수 있다. 이성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공

작’에서는 북한 대외경제지원 처장 리명운 역을 맡았고, ‘목격자’에서는 우연히 살인 사건을 목격한 아파트 주민 상훈 역을 맡아 전혀 다른 색의 연기를 선보인다.

주지훈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에서 열린 ‘공작’ 제작 보고회에서 이 같은 겹치기 개봉에 대해 “개봉 시기를 미리 알 수는 없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다”면서 “배우로서는 관객들이 영화를 많이 보는 시점에 영화 두 편이 나오는 것에 대해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된다. 그런데 두 영화의 색이 달라서 모두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주지훈의 말처럼 배우들이 영화 개봉 시기를 미리 알고 출연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개봉일 결정은 전적으로 메인 투자·배급사들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덩달아 겹치기 출연이 된 배우들은 난처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한다.

극장가 성수기에 유독 이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멀티 캐스팅 기반의 대형 상업 영화들이 이 시기 개봉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겨울에는 하정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 ‘신과함께-죄와 벌’과 ‘1987’이 동시기 개봉해 경쟁적으로 맞붙기도 했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어쨌든 화려한 주연급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고예산 멀티 캐스팅 영화들이 여름이나 추석, 겨울 성수기 등에 개봉하고 대형 프로젝트의 흥행을 담보할 수 있는 검증받은 배우들의 ‘풀’이 적어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다양한 배우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못하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시장 상황 자체가 모험을 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 국내 관객들의 성향에 따라 겹치기 개봉 때문에 작품이나 배우를 식상해하는 수치가 그리 흥행에 큰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서 배급 고려 사항에서 밀리게 된다”면서 “국내 관객들은 영화에 어떤 배우가

출연하는지 증시하지만 누가 나와서 본다거나 반대로 누가 나와서 보지 않는 비중은 적다. 그런 것보다는 영화가 어떤 내용과 이야기, 플롯, 재미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했다.

## 수미네·풀 뜯는소·등탈3...tvN 예능 ‘이유 있는 호평’



tvN 평일 신규 예능들이 선전하고 있다.

시골 삶큐멘터리 ‘풀 뜯어먹는 소리’는 첫 방송을 시작한 6월 4주차의 콘텐츠 영향력을 집계한 CPI 지수에서 ‘관심 높은 프로그램’ 1위, ‘병행력 있는 프로그램’ 2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등탈출3’은 최근 시청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화자 연장을 결정했으며 ‘수미네 반찬’은 지난 2회 방송이 평균 4.5%, 최고 5.7%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매주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닐슨코리아 / 케이블, 위성, IPTV 통합 유료플랫폼 / 전국 기준)

최근 선보인 평일 예능들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원인은 신선한 재미를 전한다는 점이 찾을 수 있다. 먼저 ‘풀 뜯어먹는 소리’는 정형돈, 김숙, 송하윤, 이진호 등 4명의 출연진이 시골에서 생활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는데 주제로 16세 중등농부 한태웅이라는 유례없는 캐릭터를 더했다. 여느 어른들보다

더 어른스럽지만 때묻지 않은 태움 이만의 매력에 이전에 없던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최근 화자 연장이 결정된 ‘등탈출3’ 역시 지난 시즌과 차별화된 재미를 전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이다. 부모의 품을 떠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았던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에서는 사춘기 청소년과 부모의 현실적인 일상과 고민들을 비중 있게 다룬다. 때때로 다투기도 하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뽕뽕한’ 가족들의 이야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몰입과 공감을 일으키고 있다.

‘풀 뜯어먹는 소리’에 중등농부 한태웅이 있다면 ‘수미네 반찬’에는 김수미가 있다. 요리에 사용되는 재료의 양을 “요만치”라 설명하고 눈대중으로 간을 하는 김수미의 모습은 기존 책방에서 볼 수 없었던 캐릭터인 것. 김수미와 유령 셰프들의 케미도 신선하다. 김수미의 카리스마 앞에서 압전한 제자가 되는 유명

셰프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신개념 예능 ‘나의 수학사춘기’도 수학이라는 신선한 소재를 활용해 대입을 앞둔 학생부터 ‘수포자’(수포자포기자)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방송 직후 프로그램이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연예계 대표 ‘수포자’ 박지은, 이진호, 몬스타엑스 민혁, 모모랜드 데이지, 더보이즈 신우가 출연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변해 수학 도전기를 펼치며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또한 타지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기획과 요일별 편성전략도 평일 예능의 선전을 이끌었다. tvN 측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모이는 시간대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편안한 구성을 취하는 한편 대중적인 생활밀착형 소재를 신선한 인물을 통해 풀어낸 많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19~20시 예능 시청자들이 21시 30분 드라마 블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요일별 콘텐츠 성격을 달리해 편성한다’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것 같다”라고 평일 예능 선전에 대한 이유를 전했다.

이처럼 tvN 신규 평일 예능들은 신선한 소재와 캐릭터, 타지 분석을 바탕으로 ‘이유 있는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어 앞으로의 이야기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tvN ‘풀 뜯어먹는 소리’, ‘등탈출3’, ‘수미네 반찬’은 각각 매주 월, 화, 수 저녁 8시 10분에, ‘나의 수학사춘기’는 매주 화 저녁 7시에 방송한다.

## 트와이스, 9인9색·9일 컴백·9연타 홈런...만점 활약



데뷔 이래 흥행불패 신화를 쓰고 있다. 트와이스가 서머송을 들고 9연타 히트 홈런을 날렸다.

트와이스는 9일 오후 8시, 스페셜 2집 ‘서머 나잇’의 타이틀곡 ‘댄스 더 나잇 어웨이’로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달리고 있다. 쟁쟁한 음원 강자들을 제치고 신곡을 발표하자마자 보란듯이 차트 1위를 점령하고 있다.

‘댄스 더 나잇 어웨이’는 특별한

행복을 품고 살아가는 트와이스 아홉 멤버들의 청춘을 표현한 업템포 팝곡이다. 트와이스만의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일품 한여름 무더위를 딱 가시게 할 만큼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이 한기적이다.

트와이스로서는 첫 여름 시즌송이다. 이윤음 CF 덕분에 그동안 여름을 대표하는 걸그룹처럼 느껴졌지만 ‘댄스 더 나잇 어웨이’를 들고 한여름 무더위를 타파하는 9인 9색 서머걸로 최초 변신한 트와이스다.

멤버들의 미모는 물이 올랐다. 지효, 나연, 다현, 모모, 사나, 미나, 정연, 채영, 쯔위는 한층 더 청량하고 발랄한 매력으로 곡의 분위기를 한층 업 시키고 있다. ‘예쁜 예 예 예’ 타이틀은 더욱 굳건해

졌다.

트와이스는 2015년 10월 데뷔곡 ‘우아하게(OH! AH! HAKE)’를 시작으로 ‘치어 업(CHEER UP)’, ‘TT’, ‘낙낙(KNOCK KNOCK)’, ‘시그널(SIGNAL)’, ‘리키(LIKEY)’, ‘하트 셰이커(Heart Shaker)’, ‘왓 이즈 러브?(What is Love?)’까지 모든 활동곡을 히트시켰다.

전문후후한 대기록이다. 특히 트와이스는 ‘우아하게 부터 ‘왓 이즈 러브’까지 뮤직비디오 8연속 1억 뷰에 성공했다. ‘댄스 더 나잇 어웨이’의 초반 기세도 만만치 않아 9연속 1억 뷰 돌파는 때 놓은 당상이다.

트와이스 아홉 소녀들이 9일 컴백해 9연속 히트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 ‘식사를 합시다3’, 개성 만점 이웃들

‘식사를 합시다3: 비긴즈’ 속 개성 만점 명진빌라 이웃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tvN 새 월화드라마 ‘식사를 합시다3: 비긴즈’(극본 임수미/연출 최규식/기획 tvN/제작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는 서른넷, 슬럼프에 빠진 구대영(윤두준 분)이 식사의 시작을 함께했던 이지우(백진희 분)와 재회하면서 스무살 그 시절의 음식과 추억을 공유하며 상처를 극복하는 이야기. 그중 이들의 스무 살 시절은 대학 새내기인 구대영과 이지우의 1인 가구 생활기가 펼쳐질 터셔츠를 키플 캐달 같은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

다.

두 사람은 202호와 201호에 각각 살고 있지만 구대영의 집에는 같은 과 동기 단무지 3인방 배병삼(김동영 분), 김진석(병헌 분), 이성주(서벽준 분)라는 객식구들이 있고 이지우의 집 역시 여동생 이서연(이주우 분)이라는 부형이 존재한다. 1인 가구이지만 묘하게 혼자지켜낸 이들의 일상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빌라 1층에 사는 주인집 노부부 와 대영의 옆집 203호에 거주하는 무속인도 범상치 않은 캐릭터다. 정체불명의 째깍방 티셔츠를 키플 티로 입고 있는 부부는 무려 건물

주임에도 폐지와 빈 병 모으기가 취미 무속인은 어딘지 모를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풍기며 강렬한 컨셉터 활약을 선보일 전망이다.

이번 시즌3의 명진빌라 구대영의 대학생 시절 2004년에 살았던 자취집을 배경으로 뜻밖한 스무살의 첫 독립과 친구들, 이웃들과의 좌충우돌 생활기가 폭풍 공감과 아귀자기한 재미를 선물할 예정이다.

한편 tvN 새 월화드라마 ‘식사를 합시다3: 비긴즈’는 ‘멈추고 싶은 순간: 어바웃 타임’ 후속으로 오는 18일 밤 9시 30분에 첫 방송된다.

뉴스스

### 오늘의 운세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음력 5월 28일)



▶**띠** 사랑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남의 눈 피해야 할, 부정적인 만남이라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라. 3, 4, 8월생은 연하나 연상 이성에게 눈먼 자가 되지 말고, 같이 사는 사람과 대화의 장을 열어 자녀에게 건강 문제에 좀 더 신경 쓰라.



▶**띠** 2, 6, 11월생은 꾸준한 노력이다. 다만 중단 수가 있으니 인내하면서 추진하라. 그러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때로는 인복이 없으며 한숨을 쉬지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라. 조립 금속, 의료제조업 종사자는 서서히 풀리는 운이다.



▶**띠** 큰 그릇이 되는 길은 나 스스로 갈고 닦으며, 시련을 극복하며 쌓는 것이다. 쉽게 부와 명예를 가지려는 생각으로 깊이 있는 인생 가치를 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5, 8, 11월생은 닭, 뱀이가 다리 구실을 한다.



▶**띠**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면이 강해 닭, 말 돼지띠 탓에 신경이 예민해지기 쉽다. 양보하려면 확실히 하라. 1, 6, 9월생은 둘 다 잡으려다 본인만 외롭게 됨을 알라. 초조하고 불안하면 날개 깎아 새 신세가 된다. 나를 찾으라. 파란색이 길하다.



▶**띠** 마음속에 묻어 두지 말고 털어놓고 해결할 방법을 찾으라. 5, 7, 10월생 ㄱ, ㄷ, ㅅ 성씨는 무엇인가를 잡으려 발버둥 치는 격이다. 내 것은 내가 챙겨야 강 건너 물 보듯 하다가 남에게 빼앗긴다.



▶**띠**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과 갈등을 빚으니 마음의 안정 찾지 못한다. 1, 4, 9월생 서로 존경해야 남에게도 존경받는다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기분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면 인생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중심을 지켜나가야 한다. 자식을 생각하라.



▶**띠** 주관이 뚜렷하고, 소신대로 행하는 것은 좋으나 한 번쯤 아내와 의견을 일치해 행할 때 일사처리로 일이 처리된다. ㄴ, ㄷ, ㅎ 성씨는 애정에 불만을 담아 두지 말고, 문제점을 상대와 대화로 풀라. 길이 있다. 개, 소띠가 힘이 되겠다.



▶**띠** 지금껏 여러 어려움에 처했지만, 새롭게 도전하는 일에 승부를 건다면 대성할 수 있다. ㄱ, ㅅ, ㅈ 성씨 남에게 줄 것이 어렵다면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라. 그래야 신용을 지킬 수 있다. 5, 7, 11월생 보름은 절대 금물이다. 서남쪽이 길하다.



▶**띠** 현재는 빠지도 박지도 못하는 위치에 있다. 용기만 벗어날 수 있음을 알라. ㄱ, ㅈ, ㅊ 성씨 사랑하려고든 스쳐 지나가는 어리석음보다 진정한 사랑 찾기에 힘을 기울이라. 5, 7, 12월생은 하는 일에 자신감이 없어 벗어나려는 격이다.



▶**띠** 5, 8, 12월생은 시작이 좋으나 동업 상대를 기만하면 결국 신용도, 사람도 잃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ㄱ, ㅈ, ㅎ 성씨 사업에는 차질이 없게으나 딴 곳에 신경 쓰다 하는 일까지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관계사까지 따르니 인행을 조심하라.



▶**띠** 태만한 사람에게는 성공이 있을 수 없다. 남에게 의지할 생각을 하지 말라. 2, 4, 5월생 검은색은 입지 않는 것이 좋겠다. ㄱ, ㄷ, ㅈ 성씨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위해 무한히 노력할 때구나.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환경과 조건을 염두에 둔 채 서쪽에서 찾으려 길하다.



▶**띠** 전통적으로 믿는다고 상대가 내게 진심을 주는 것은 아니다. 상대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1971년생 ㄴ, ㅅ, ㄷ 성씨는 친척 간 의견 대립이 있다. 서운함이 있다면 풀고 상부상조하라. 6, 7, 9월생 자식 건강을 주의하라.